"나는 苦·病·死를 멸하겠다"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③

전설상의 붓다 〈1〉

마야부인은 꿈속에서 여섯개의 상아를 가지고 눈같이 흰 몸에 루비처럼 붉은 머리를 한 코끼리가 옆구리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불교강의 목차

제1장 전설상의 붓다
제2장 역사상의 붓다
제3장 불교에 영향을 준 사상들
제4장 불교의 우주관
제5장 윤회
제6장 불교교리:법륜과 열반
제7장 대승불교
제8장 라마불교
제9장 중국불교
제10장 탄트릭불교
제11장 불교윤리

붓다(佛陀)의 전설은 붓다가 누구였나를 보여주는 증거라기보다 붓다가 짧은 순간의 깨달음을 통해 도달한 경지에 대한 증거라고 여러 학자들이 지적했다. 학자들은 전설적이고 신화적인 이야기 속에는 불교의 핵심이 잘 표현되어 있다고 동의했다. 전설은 우리에게 수많은 세대에 걸친 선인(善人)들이 믿어 왔고 또 지금도 많은 인류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내용을 밝혀준다.

붓다의 전기는 하늘에서 시작한다. 보살('覺者'라는 뜻으로, 성불할 사람을 지칭. 여기선 전생의 붓다를 가리킴.)은 수많은 전생의 공덕에 의하여 신들이 사는 제4천(天)에 탄생한다. 그곳에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환생할 시간과 땅과 왕국 등의 인간세를 굽어본다. 네팔 남부 지방의 카필라 성을 통치하는 숫도다나 왕의 왕비 마야(이것은 환영(幻影)인 우주를 창조한 마술적 힘과 같은 발음이다)부인을 어머니로 선택한다. 마야부인은 꿈속에서 여섯개의 상아를 가지고 눈같이 흰 몸에 루비처럼 붉은 머리를 한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꿈이 깨자 왕비는 몸속에서 고통이나 이질감 대신 몸이 가뿐하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신들은 부인의 몸속에 신궁(神宮)을 창조한 것이다. 그 경내(境內)에서 보살은 기도하며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춘상월 부인은 해산하기 위해 친정 콜리성으로 가다가 카필라와 콜리의 경계에 있는 룸비니 동산을 지나가고 있었다. 무성한 잎이 공작새 꼬리처럼 반짝이고 있던 무우수(無憂樹) 한그루가 부인의 머리위로 가지 하나를 늘어뜨렸다. 부인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 가지에 달린 잎새를 받았다. 그 순간 보살이 깨어나 부인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오른쪽 옆구리로 나왔다. 아기는 일곱발자국을 걸어가서 상하 좌우 전후를 둘러보았다. 우주에 자신과 동일한 인물이 없다는 것을 보고 난 뒤,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첫번째 자요, 제일 높은 자이다. 이번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다. 나는 고(苦), 병(病), 사(死)를 멸(滅) 하겠다"

두조각의 구름이 몰려와 산모와 아기가 목욕할 수 있도록 찬물과 더운물을 부었다. 장님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절름발이가 걷고, 악기들이 절로 울려 퍼지고, 제4천의 신들이 기뻐서 춤추고 노래했다. 지옥의 죄인들은 그들의 고통을 잊어버렸다. 같은 순간, 미래에 그의 아내가 될 야소다라와, 마부와, 말과 코끼리가 태어나고 후에 그 그늘 아래서 붓다가 정각을 이룰 보리수도 태어났다. 아기 이름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라는 뜻에서 싯다르타로 정해지고, 샤카족 가족 사이에선 고타마로 불렸다.

산모는 아기가 태어난지 이레만에 죽어 33인의 여신들이 살고 있는 하늘로 올라갔다. 예언자 아시타는 천신들의 환호성을 듣고 산에서 내려와 아기를 품에 안고 말했다.

"이분은 지극히 존엄하신 분이다."

그리고는 아기의 몸에서 선택된 자의 상호(相好)를 확인했다. 두개골 가운데엔 왕관모양의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눈섭은 소눈섭 같았다. 40개의 가지런하고 흰 치아, 사자같은 턱, 긴 두팔, 황금빛 피부, 손가락 사이엔 물갈퀴 등을 가지고 있었다. 발바닥에는 호랑이, 코끼리, 연꽃, 피라미드 모양의 메루산, 바퀴, 만자(卍字) 등의 각종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윽고 자신이 이미 너무 늙어버려 장래에 붓다가 설법할 법문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친 아시타는 눈물을 흘렸다.

해몽가들은 마야부인의 꿈 이야기를 듣고, 장차 태어날 아기가 왕위를 계승하면 세계의 주인인 전륜성왕(轉輪聖王)이 될 것이며, 만일 출가하면 세계의 구원자(佛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었다. 숫도다나왕은 자신의 아들이 세계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개의 궁전을 짓고, 그 속에서 태자가 유한성(有限性), 고통, 죽음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태자는 언변술, 식물학, 문법, 격투기, 달리기, 멀리뛰기, 수영 등의 교육을 받고, 시험에서 항상 일등을 하였다. 특히 궁술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였는데, 싯타르타가 쏘아올린 화살은 그 누구의 화살보다 더 멀리 날아갔고 화살이 떨어진 곳에서 샘이 솟아났다.(이 샘을 찾아 나서는 모험이 키플링의 소설 〈킴 Kim〉의 주제이다.) 이런 무훈(武勳)들은 훗날 불타가 악마를 굴복시키고 거둘 승리의 상징으로 보인다. 왕자는 19세가 되자 결혼하게 된다.

◇마야부인은 흰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꾼 뒤 싯다르타를 잉태했다. 이 부조물은 바르후트 난간기둥에 새겨진 것으로 기원전 2세기 작품이다. 인도 박물관 소재.

◇싯다르타 태자가 룸비니 동산·무우수가지 밑에서 마야부인의 옆구리로 태어나고 있다. 제작 연대가 2세기경인 이 작품은 페샤워르 박물관 소장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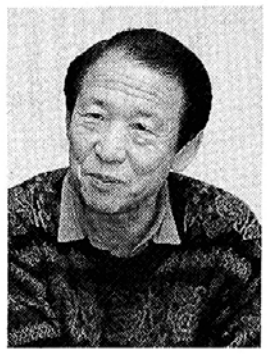
보살은 인간세상 구원위해 환생 "전륜성왕 오셨네"

아기이름 '다 이루어지다' 뜻가진 싯다르타로 지어

편역 김 홍 근
〈외대강사 · 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이 상 범 〈시조시인〉



불가와의 인연은 할머니 어머니에게까지 거슬러 올라 가야 한다. 그러니 생래(生來)적인 것이다. 초파일은 물론 명절이면 목욕을 하시고 머리를 곱게 빗으신 뒤에 티를 골라낸 쌀과 소지, 그리고 초등을 마련하여 절로 가셨다. 흰 옷을 입으시고 가족의 안위를 기원 하셨던 모습을 지금도 아련히 기억해 낸다.

무엇보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던 그것이 나에겐 신뢰와 큰 위안이 되어 주었다.성장하며 많은 변화속에 스스로를 추스려야 하는 과정에서 불교라는 크나큰 포용력은 시도(詩道)를 걸어가는데 힘이 되어 주었고 정신의 밑바탕인 자양이 되었던 것 같다. 때문에 시에 혼을 담고 기도(혹은 禪)를 하는 과정에서 불교의 진수를 문득문득 대할 수 있었던 것은 경이(驚異)요, 지복이라 여기고 있다. 그래서 불음과 더불어 살아 간다는 신념으로 창작에 임하고 있다.

"불법은 내 詩作 이끄는 자양분"

禪·茶·詩 어울림서 '빈손' '기도' 의미 터득

두 손을 펴든 채
가을볕을 받습니다
하늘빛이 내려와
우물처럼 고입니다
빈 손에 어리는
어룽이 눈물보다 밝습니다.
비워둔 항아리에
소리들이 모입니다.
눈발 같은 이야기가 정갈하게 씻깁니다
거둘 것 없는 마음이 억새꽃을 흩습니다.
풀향기 같은 성좌가 머리위에 얹힙니다
죄다 용서하고 용서 받고 싶습니다.
가을 손 조용히 여미면 떠날 날도 보입니다.

'가을 손'이란 작품이다. 가을 손이란 바로 빈 손이다.또한 부끄러운 손이다. 겸허한 손이자 기도하는 손이기도 하다.그러기에 뉘우침의 손이기도 하다. 청명한 가을날에 자신을 맑게 비우며 삶을 터득해 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 죽음 저쪽까지 환히 꿰뚫어 볼 수 있을듯한 마음자리를 스스로 대견하게 여기는 것도 그때문이다. 이같이 순화된 정서와 심상은 시의 출발이자 결과라고 보아 큰 차질이 없을 것 같다. 이는 곧 불심의 근본과 상통하는 그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사실 불가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차(茶)와 무관할 수가 없다.물론 우리차인 녹차(작설차)를 비롯해 오룡차, 철관음, 보이차 등 종류는 많지만 그 효능에선 대동소이 하다고 본다. 피를 맑혀 정신의 강도를 높혀 줌으로써 수행을 하는이에게 도움의 손을 펼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차시(茶詩)도 그런 연유에서 나온 시다.

〈 1 〉
죽로차(竹露茶) 서너 모금 내장 깊이 흘려넣다
도시의 뗏국이며 노독(路毒)마저 풀리는 소리.....
아, 육신 살로서 듣는 새울음의 산물소리.

〈 2 〉
반야차 자꾸 마시면 청청한 무엇이 될라
반야를 반야로 마시면 결국은 부처가 되는 걸까

연일은 부처를 마시며 허허 웃음 웃어 본다.

茶詩 '죽로차'에는 오염된 도시에서 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녹차 한모금의 기쁨과 고마움의 노래가 있다. 살로써 듣는 새울음의 산물소리가 그것이다. 땀을 흘리고 산을 오르고 산사에서 세수하고 마시는 녹차를 상상해 보면 그 경지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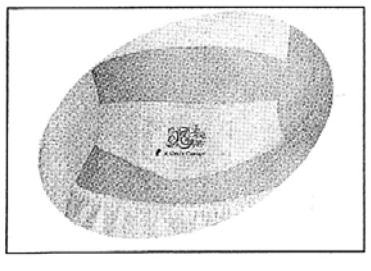
반야차는 품위있는 농이요, 덕담쯤으로 여겨도 좋겠다. 다만 언어 밖의 귀울림을 감지했으면싶다. 해인사의 종진스님이 모티브가 되어 썼던 '해인사 韻'을 옮기며 맺겠다.

눈빛 속 가야산이 아침세수 하고 있다
장심에 이끌려 나온 골물소리 귀에 높고
풀다 만 불룩한 걸망 비늘 빛는 팔만대장경..

'해인사 운'은 대찰과 스님을 바라보는 나의 관견이자 시안이다. 이는 시의 본령이자 믿음의 핵이라 여기고 있다. 지금은 세계적인 유산이 된 팔만대장경은 걸망속에서 빛나고 있음을 불가의 모든 사람은 유념해야 할 때라고 본다.그것이 곧 불교를 정신적으로 한차원 더 높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2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1996학년도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통신 출강 법사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 부처님 교법 따라 포교 · 정진 · 행동하는 대승의 법사!

■ 모집과정 : 법사과정 · 오종대법사과정
■ 수업안내 : ① 출강수업 ② 통신수업
■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오종대법사과정 = 2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1월 5일 ~ 3월 15일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무처

특 전
• 각 과정 수료시 법사호 품수와 소정의 법사자격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법사불교신문에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자격고시 거쳐)

법사교육목적
본 대학은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불교학문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교수하여 불교발전과 정토사회구현을 위해 포교활동하는 불교지도자적인 대승의 법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韓國佛敎法師總聯合會 附設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 737-5305
FAX : (02) 720-1836